

# 朝鮮後期の『實錄廳題名記』研究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Directory of the Compiling Office for Sillok*

裴賢淑 (Pae, Hyon-Suk)\*

## ◁ 목 차 ▷

- |                      |                      |
|----------------------|----------------------|
| 1. 緒言                | 4. 實錄廳儀軌와 題名記의 官員 差異 |
| 2. 朝鮮後期の『實錄廳題名記』의 編纂 | 5. 『顯宗實錄廳題名記』의 異版本   |
| 3. 『實錄廳題名記』의 傳來本     | 6. 結言                |
|                      | <참고문헌>               |

## < 초 록 >

조선시대에는 실록의 인출이 완료되면 춘추관에 봉안한 후 의궤청을 설치하고 의궤와 제명기를 편찬하였다. 제명기의 편찬은 조선 전기의 관례를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전기의 제명기는 임진왜란으로 모두 인멸되고 전래되는 가장 오래된 것은 선조년간의 『實錄印出廳題名記』이다. 이후 역대왕의 실록 편찬이 끝나면 제명기는 편찬되었지만 다 전래되는 것은 아니다.

제명기에 수록된 내용은 서문, 편찬일정과 명단이다. 명단에는 階司職, 姓名, 字, 生年, 科擧登第年度와 종류, 本貫은 반드시 수록하였고, 후대의 제명기에는 담당업무 또는 仕日數가 첨가되었다. 역대의 제명기에는 異本이 없으나 현종의 경우만 이본이 있는데, 동일활자로 인출되었다. 그러나 일부만 수정해서 인출한 것이 아니고, 수정한 내용을 포함해서 별도로 조판한 것이다. 거듭 간행하게 된 이유와 간행의 주체는 더 고구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실록청의 제명기에 수록된 인원과 의궤에 수록된 인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여러 연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각각의 의궤와 제명기를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要語: 실록, 제명기, 인명록, 의궤

\* 계명문화대학 교수. 서지학전공(hspae1977@empal.com)

접수일: 2011년 9월 9일 최초심사일: 2011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11년 9월 20일

<ABSTRACT>

In the Joseon dynasty, after printing of 『Sillok』 i.e. 『the Chronological Annals (실록)』, the Bureau of State Records(춘추관) enshrined these Annals at the Library in the palace, and established Uigwe-cheong(의제청) to edit 『the Manual for the Procedure of Compiling Sillok』(실록청의제) and 『the Directory of the Compilation Office for Sillok』(실록청제명기). 『The Directory of the Compilation Office for Sillok』 is a directory of compilers who participated in compiling 『Sillok』, and its compilation followed the tradition since the early Joseon period. The similar directories were inserted either in the latter part of the Annals or in 『the Manual for the Procedure of Compiling Sillok』. Most of 『The Directory of the Compilation Office for Sillok』 published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were burnt out. 『The directory of the Printing Office for Sillok』(실록인출청제명기) in the 16 century proved to be the oldest existing book among 『the directory of the Compilation Office for Sillok』.

Since the 17 century 『the Directory of the Compilation Office for Sillok』 was always compiled after the publication of 『Sillok』, but not all of them remain. The contents are very simple to have only full official titles and names of compilers. As time passed more contents were added such as the adult name, year of birth, year of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ancestral home, hours of duty and the business under his charge.

『The Directory of the Compilation Office for Sillok』 for most 『Sillok』 do not have different versions, except the directory of King Hyeonjong(현종)'s 『Sillok』. They were printed by the same metal movable types, but one of them was separately typeset with the revised content. The reason for its revision and the printers are to be studied in days to come.

There is some difference between the compiling officers included in 『the Directory of the Compilation Office for Sillok』 and those included in 『the Manual for the Procedure of Compiling Sillok』. There may be a few reasons for these differences, which is to be studied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Sillok, The Directory of the Compilation Office for Sillok, directory, Uigwe

## 1. 緒言

『朝鮮實錄』은 조선시대의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인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실록을 편찬하고 간행할 때 매우 많은 물력과 인력을 투입해야 했으므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편찬하였다. 각급의 문신 가운데 차출되어 수집된 사료를 분석하고, 집필한 사관은 물론 선공감 감역, 창준, 각자장, 균자장, 지장, 인출장, 장책장, 서기, 사령, 수직군관 등 동원된 인원은 매우 많다. 이에 대해 『實錄廳儀軌』에는 비교적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동원된 시일, 기간, 체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는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명단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는 없다. 이와는 별도로 실록 편찬의 중심인물인 실록청의 관원만 수록된 인명록이 있으니 『實錄廳題名記』이다. 본고에서는 실록 편찬에 동원된 관원의 명단인 『實錄廳題名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록의 편찬이 끝나면 아울러 해당 실록의 형지안, 제명기와 의궤를 편찬하였다. 그러나 실록마다 『實錄廳儀軌』와 『實錄廳題名記』가 전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자료는 왕에 따라 명칭이 약간 다르지만 『實錄廳儀軌』와 『實錄廳題名記』로 통칭할 수 있는데, 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다. 그러나 몇 종의 『實錄廳題名記』와 『實錄廳儀軌』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료를 탐색하던 중 선조년간 실록을 복인할 때의 제명기인 『實錄印出廳題名記』는 최근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성암고서박물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전래하는 가장 오래된 제명기여서 실록청 제명기의 의문을 풀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먼저 『實錄印出廳題名記』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sup>1)</sup> 본고에서는 『實錄印出廳題名記』 이후의 『實錄廳題名記』, 또는 『實錄廳題名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裴賢淑, “宣祖年間の 實錄印出廳題名記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46집(2010. 9), 5-39.

## 2. 朝鮮後期の 實錄廳題名記의 編纂

실록편찬에 동원된 중요관원은 여러 자료에서 찾아낼 수 있다. 첫째로 임명 또는 체직된 날자로 해당 날자의 춘추관이나 승정원에서 편찬한 사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서가 모두 전래되거나, 모든 실록청 관원이 수록된 것은 아니어서 동원된 모든 관원을 다 확인할 수는 없다. 둘째는 해당 실록의 말미에 일괄로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수록되지 않은 관원도 간혹 있고, 또 임명된 날자나 동원된 기간은 알 수 없다. 또한 모든 실록에 수록된 것도 아니다. 셋째는 『實錄廳儀軌』의 기사에서 임명 또는 체직된 날자순으로 찾아낼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임명 또는 체임된 연월, 사유, 전임 또는 후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실록청에서 활동한 기간도 산출해낼 수 있다. 편년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넷째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實錄廳題名記』이다. 그러나 이 제명기도 편찬시기에 따라 기록내용이 상이하여 간략하게 기록된 경우도 있고, 임명과 체직시기, 동원기간, 담당업무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된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실록의 편찬에 있어 최종적으로 편찬된 것이 『實錄廳題名記』이다. 이는 실록편찬이 완료되면 동원된 관료의 명단을 작성하는데, 해당 실록의 말미에 일괄로 수록할 실록청의 관원명단, 정부연에 초청할 명단, 포상할 명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실록 말미에 수록된 명단이 가장 먼저 작성되었을 것이고, 다음에 정부연에 초청할 명단, 포상할 명단이 작성되었을 것이고, 이어 『實錄纂修廳儀軌』와 『實錄廳題名記』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록 편찬의 단계를 통해 유추하면 알 수 있다.

전래되는 『實錄纂修廳儀軌』를 토대로 종합하면 실록은 여섯 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 첫 단계는 실록편찬을 위한 기본자료인 시정기와 사초를 준비하고 준비된 사료를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는 주로 상설기관인 춘추관에서 담당하였다. 둘째 단계는 준비된 사료를 수집, 정리, 편찬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춘추관에서는 임시기관인 실록청을 설치하고 수행하였다. 대체로 실록청은 아래로 도청, 1-3방

을 두고 각각 당상과 낭청의 관원을 임명해서 수찬하였다. 셋째 단계는 실록의 편찬이 끝나 실록을 제작하는 과정이다. 실록청에는 역시 임시기관인 正書廳錄廳, 粉板廳錄廳, 別工作廳을 설치하고, 실록을 正書, 印出, 裝潢하고 奉安用의 實錄櫃를 제작하였다. 넷째 단계는 실록을 春秋館史庫에 봉안하고 아울러 외사고에도 분장하기 위해 형지안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동원되었던 관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정부연을 열고 시상하였고, 이어 洗草宴도 베풀었다. 다섯째 단계는 춘추관에 실록을 봉안한 후 실록편찬의 전말을 기록하기 위해 儀軌廳을 설치하고 의궤를 편찬하고 아울러 제명기를 편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까지 실록청은 존속된다. 여섯째 단계는 춘추관에 임시로 봉안해 두었던 실록을 외사고에 봉안하는 단계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종류의 실록청 관원의 명단 가운데 실록의 말미에 일괄로 수록된 실록청 관원의 명단은 늦어도 실록편찬에 있어 셋째단계까지는 작성되어야 한다. 제명기는 다섯째 단계에는 작성되어야 한다. 셋째 단계와 다섯째 단계 사이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실록마다 말미에 편찬에 동원된 관원의 명단이 수록된 것은 아니다.

<표 1> 實錄에 收錄된 編纂 官員의 收錄 樣式

實錄名	收錄順序와 樣式	官職名 樣式
太祖		
定宗		
太宗	春秋館의 監事, 同知事, 記注官	實職+兼職+姓名
世宗	春秋館의 監事, 知事, 同知事, 編修官, 記注官	實職+兼職+姓名
文宗	春秋館의 領事, 知事, 同知事, 編修官, 記注官	實職+兼職+姓名
端宗		
世祖	春秋館의 領事, 監事, 知事, 同知事, 修撰官, 編修官, 記注官, 記事官	實職+兼職+姓名
睿宗	春秋館의 領事, 監事, 知事, 同知事, 修撰官, 編修官, 記注官, 記事官	實職+兼職+姓名
成宗	春秋館의 領事, 監事, 知事, 同知事, 編修官, 記注官, 記事官	實職+兼職+姓名
燕山君		
中宗	春秋館의 監事, 知事, 同知事, 編修官, 記注官, 記事官	實職+兼職+姓名
仁宗	春秋館의 監事, 知事, 同知事, 編修官, 記注官, 記事官	實職+兼職+姓名

實錄名	收錄順序와 樣式	官職名 樣式
明宗	春秋館의 監事, 知事, 同知事, 編修官, 記注官, 記事官	實職+兼職+姓名
複印本	(職級 區分 없으나) 春秋館의 領事, 監事, 知事, 同知事, 修撰官, 編修官, 記注官, 記事官	實職+兼職+姓名
宣祖 (修正)	春秋館의 領事, 監事, 知事, 同知事, 編修官, 記注官, 記事官	實職+兼職+姓名
光海君		
仁祖	實錄廳의 摠裁官, 都廳(堂上, 郎廳), 1房(堂上, 郎廳), 2房(堂上, 郎廳), 3房(堂上, 郎廳)	實職+兼職+姓名
孝宗	實錄廳의 摠裁官, 都廳(堂上, 郎廳), 1房(堂上, 郎廳), 2房(堂上, 郎廳), 3房(堂上, 郎廳)	實職+姓名

태종년간에 시작하여 세종년간에 완성된 태조와 정종의 실록은 여러 차례 개수된 바 그 과정에서 편수관을 수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산군(단종), 연산군, 광해군의 경우는 실록도 아닌 日記로 편찬되었던 바 당시 관료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라 여기지 않았을 것이므로 수록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孝宗實錄』까지는 실록말미의 명단에 수록되었으나 『宣祖修正實錄』과 『顯宗實錄』 이후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종종년간 열성실록을 중수할 때의 題名帖子에 세초연에 주악을 하사한 사실<sup>2)</sup>을 통해 역대로 제명록을 편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는 성주사고의 화재로 실록이 일부 불타서 이를 필사해서 보완한 때로 추정된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전에는 실록말미에 편수관의 명단을 수록하고 제명록도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실록마다 『實錄纂修廳儀軌』와 『實錄廳題名記』가 전래되는 것은 아니다. 임진왜란 이전의 의궤는 완전히 인멸되었고, 임진왜란 직후는 복인본과 『宣祖實錄』 편찬시의 의궤만 실전되었고, 그 이후의 의궤는 모두 전래되고 있다. 전래되는 가장 이른 제명기는 실록 복인시의 『實錄印出廳題名記』이고, 이후에는 『實錄廳題名記』 또는 『實錄廳題名錄』으로 편찬되었다.

『實錄廳儀軌』는 실록을 찬수한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실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卷首에 目錄이 있고 이어 時日과 凡例가 있다. 時日에는 設廳, 刪節,

2)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187.

纂修, 校正, 校讐, 印刊, 奉安, 洗草의 일정이 기재되어 있고, 凡例에는 纂修時와 校正時로 나누어 조목조목 수록되어 있다. 다음에 啓辭(座目), 移文秩, 甘結秩, 書啓類, 各房謄錄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啓辭에는 摠裁官 이하 堂郎의 임면과 명단, 實錄廳事目, 實錄廳纂修凡例, 校正凡例, 實錄廳儀軌事目, 論賞이 수록되어 있다. 移文秩에는 실록청 도청에서 각 기관에 실록제작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보낸 공문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전반적인 물자의 조달과 실록청에 소속된 인원과 工匠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다. 甘結秩에는 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내리는 문서를 수록하였는데, 지시와 명령이 주된 내용이다. 같은 내용의 감결을 몇 개의 관서에 내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한 관서에 내리는 수도 있다. 물자의 조달에 있어서는 구체적 분량과 공급시기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書啓類에는 宣醞과 관련하여 찬수 참가자의 명단, 備忘記, 堂郎의 仕日, 來關, 禮關 등이 기록되었다. 各房謄錄(1-3房, 謄錄廳, 粉板廳, 儀軌廳, 別工作廳)에는 대체로 各房의 所掌事와 任員, 稟目, 甘結, 會同, 堂郎前後官竝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문서는 원문서 상태가 아닌 시대순으로 정리한 謄錄이다.

의궤에서 실록청 관원에 관한 기록은 啓辭에 수록된 摠裁官 이하 堂郎의 임면 과정, 명단과 논상, 書啓類에 수록된 宣醞에 참가할 관원의 명단, 堂郎의 仕日, 各房謄錄의 말미에 수록된 방별 堂郎前後官竝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록도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 누락된 것도 있다.

<표 2> 實錄廳題名記 刊行現況

王名	書名	刊寫方法	實錄	儀軌
太祖-明宗	實錄印出廳題名記	實錄字(訓鍊都監字)	實錄字	
宣祖			實錄字	
光海君	纂修廳題名錄	實錄字(訓鍊都監字)	筆寫	奎
仁祖	實錄廳題名記	實錄字(訓鍊都監字)	實錄字	奎
宣祖修正	宣祖大王實錄修正廳題名記	實錄字(訓鍊都監字)	實錄字	奎
孝宗			實錄字	奎
顯宗	實錄廳題名記	實錄字(顯宗實錄字)	顯宗實錄字	奎
顯宗改修	顯宗大王實錄改修廳題名錄	實錄字(顯宗實錄字) (序 戊申字)	顯宗實錄字	奎

王名	書名	刊寫方法	實錄	儀軌
端宗附錄			顯宗實錄字	奎
肅宗			顯宗實錄字	奎
景宗			顯宗實錄字	奎
景宗修正			顯宗實錄字	奎
英祖	實錄廳題名記	丁酉字	顯宗實錄字	奎
正祖	實錄廳題名記	丁酉字	顯宗實錄字	奎
純祖	實錄廳題名記	丁酉字	顯宗實錄字	奎
憲宗	實錄廳題名記	丁酉字	顯宗實錄字	奎
哲宗	實錄廳題名記	實錄字(顯宗實錄字)	顯宗實錄字	奎

실록청에 동원된 관원을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가 『實錄廳題名記』이다. 효종 4년(1654)의 기록에 종종년간 열성실록을 중수할 때의 題名帖子에 세초 연에 주악을 하사한 사실<sup>3)</sup>을 언급한 것을 통해 역대로 제명록을 편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전 실록의 제명기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임진왜란 이후 복인본 실록부터 확인된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한결같이 『實錄廳題名記』를 편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래되고 있는 『實錄廳題名記』는 <표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11종이다. 선조, 효종, 숙종, 경종의 실록과 단종실록의 부록, 경종의 수정실록을 편찬할 때의 제명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실록은 제명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의궤는 전래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의궤도 확인되지 않은 것은 선조실록의 경우이다. 따라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궤와 제명기를 찾아내야 완벽하게 전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3. 實錄廳題名記의 傳來本

임진왜란 후 교서관에는 인쇄도구가 많이 산실되었으므로 실록을 복인할 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훈련도감의 군사들이 깎아 만든 목활자

3)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187.

를 가져오고 부족한 활자는 새로 새긴 목활자를 보충하여 간행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된 실록청의 제명록도 모두 목활자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난후 어느 정도 정비된 숙종년간에 『顯宗實錄』을 인출할 때 금속활자를 사용하게 되자 이 활자를 이용하여 제명기도 간행하였다. 『端宗實錄』의 부록과 『景宗修正實錄』까지의 제명기는 실물이 발견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 영조부터 현종까지의 제명기는 정유자로 간행되었으나, 『哲宗實錄』의 제명기는 현종실록자로 간행되었다.

『實錄廳題名記』는 실록의 편찬작업을 마치고 편찬 작업에 참여한 사관들의 명단을 수록한 책이다. 『實錄廳題名記』에는 권두에 별도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전래본은 모두 서문의 제명을 채택한 것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실록을 복인할 때는 편찬하지 않고 인출만 했기 때문에 『實錄印出廳題名記』, 『光海君日記』를 편찬할 때는 『纂修廳題名錄』, 『顯宗實錄』을 개수할 때는 『顯宗大王實錄改修廳題名錄』, 『宣祖實錄』을 수정할 때는 『宣祖大王實錄修正廳題名記』라 하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實錄廳題名記』이다. 이들 제명기의 전래본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에 대해 편찬년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實錄印出廳題名記』는 임진왜란으로 전주사고본만 유일하게 전존하자 복본을 제작하여 분장하기 위해 태조로부터 명종까지의 실록을 복인한 때의 제명기이다. 선조 39년(1606)에 편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바 있다.<sup>4)</sup>

<표 3> 實錄廳題名記 傳來現況

王名	書名	製作年代	序文	請求記號
太祖-明宗	實錄印出廳題名記	宣祖 39(1606)	李廷龜	華山 B8 A10 13 晚松 B8 A10 13 尊經閣B09C-0415 誠庵2-377
光海君	纂修廳題名錄	仁祖 12(1634)	李植	國立 韓古朝56-나88 高麗大B8-A10 15
仁祖	實錄廳題名記	孝宗 4(1653)	蔡裕後	일산古2513-15 서울古4252.1-3 華山 B8 A10 16 崇實大951.53-실23518

4) 裴賢淑, “宣祖年間の 實錄印出廳題名記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46집(2010. 9), 5-39.

王名	書名	製作年代	序文	請求記號
宣祖修正	宣祖大王實錄修正廳題名記	孝宗 8(1657)	蔡裕後	서울古4252.1-2 晚松 B8 A10 14 華山 B8 A10 14 誠庵2-375 崇實大951.53-선7502
顯宗	實錄廳題名記	肅宗 3(1677)	閔點	한古朝51-나142(A本) 國立古2153-1(B本) 서울古4252.1-5 華山 B8 A10 18(B本)
顯宗改修	顯宗大王實錄改修廳題名錄	肅宗 9(1683)	李敏叙	일산古2513-20 國立古朝56-나197 華山B8-A10-18A
英祖	實錄廳題名記	正祖 5(1781)	趙竣	國立古2153-107 한古朝51-나141 六堂 B8 A33A 華山 B8 A10 21 延世大史部-傳記類 誠庵2-378
正祖	實錄廳題名記	純祖 5(1805)	金祖淳	한古朝51-나44 일산古2513-16 奎47, 1442, 3514 華山 B8 A10 22 晚松 B8 A10 22 景和堂 B8 A10 22 延世大史部-傳記類 韓中研 K2-556 韓中研 B16A 1
純祖	實錄廳題名記	憲宗 4(1838)	金迪根	한古朝51-나57 일산古2513-17 奎1444, 4006, 4007 韓中研 K2-557.8 華山 B8 A10 23 晚松 B8 A10 23 高麗大B8-A10 23 延世大史部-傳記類 梨花大951.05-실325 忠南大記錄類-192
憲宗	實錄廳題名記	哲宗 3(1852)	金左根	한古朝51-나108 일산古2513-18 國立고2153-67 奎1443, 4005, 4008 韓中研 K2-559,560 延世大史部-傳記類 華山 B8 A10 24 誠庵2-379

王名	書名	製作年代	序文	請求記號
哲宗	實錄廳題名記	高宗 2(1865)	金學性	한고朝51-나57 일산古2513-19 서울古4252.1-1 延世大史部-傳記類 六堂 B8 A33 華山 B8 A10 25

『宣祖實錄』은 관례대로 선조의 졸곡이 끝난 후 춘추관의 발의로 광해군 1년(1609) 10월에 시작되었다.<sup>5)</sup> 李恒福, 李廷龜, 申欽을 중심으로 편찬자료 수집과 중초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전의 사초와 자료가 소실되거나 분실되어 개인의 일기, 문집 등 보완할 자료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柳永慶의 옥사로 정국이 불안한 시국이어서 편찬작업은 지지부진하였고, 癸丑獄事를 계기로 편찬담당자가 대거 바뀌었다. 이후 실록편찬은 奇自獻을 중심으로 대제학 李爾瞻이 주도하여 편찬해, 광해군 8년(1615) 11월에 실록자로 간행하였다. 다음 일정은 늦어져 9년(1616) 9월에 선운하였고, 10년(1617) 4월경에 세초하였고,<sup>6)</sup> 7월에 외사고에 봉안하였다.<sup>7)</sup> 그러나 이때의 의례와 제명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光海君]纂修廳題名錄』은 『光海君日記』를 편찬할 때의 제명기이다. 인조가 즉위하자 魯山君과 燕山君의 예에 따라 『光海君日記』를 편찬하였다. 인조 2년(1624) 7월 총재관 좌의정 尹昉을 중심으로 예조판서 李廷龜가 주도하고 춘추관에 修正廳을 설치하고 편찬하였는데, 이때는 실록이 아닌 일기였으므로 실록청이 아닌 수정청으로 이름한 것이다. 그러나 춘추관이 협소하여 곧 남별궁으로 옮겼고, 수정청도 纂修廳으로 개칭하였다.<sup>8)</sup> 편찬 도중 李适의 난을 만나 도성이 이괄에게 점령되자 편찬자료를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또 인조 4년(1626)에 詔使가 와서 잠시 중단했고, 132개월분만 中草를 작성한 상태에서 정묘호란(1627)을 당해 나

5) 光海君日記, 1年 10월 癸丑. 권21.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31, 458.

6) 光海君日記, 9年 8월 庚申. 권118.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32, 615.

7) 光海君日記, 10年 7월 壬辰. 권130.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33, 127.

8)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寫本 [仁祖 12(1634)], 張1b.

머지 54개월분은 亂草 상태로 중단되었다. 이때 사초와 중요문서는 강화로 수송하고 초초와 잡문서는 남별궁에 묻었는데, 부식된 것이 많았다.<sup>9)</sup> 인조 10년(1632)에 남별궁에 다시 찬수청을 설치하고 尹昉을 총재관으로 하여 예조판서 崔鳴吉이 편찬을 주도해, 인조 12년(1634)에 187권을 완성하였다. 완성한 후 권1-7은 실록자로 인출하였으나 활자조판의 공역이 지극히 간고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인출을 반대하여, 권8-187은 결국 활자로 인출되지 못하여 정초본 2건과 중초본 1건을 완성하였다.

의궤의 내용 가운데 의궤청의 儀軌時使喚員役과 守直軍士, 茶母 차출은 전례에 따른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이전부터 의궤를 편찬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0)</sup> 이때의 의궤는 총재관 尹[昉], 도청당상 洪[瑞鳳], 崔[鳴吉]과 기사관 兪[楬]이 편찬하였다.<sup>11)</sup> 활자로 인출하다가 중단하고 필사하였지만 제명록은 실록자로 인출하였다. 이 제명록에는 낭청 李植의 서문에 이어 명단이 이어지는데, 총재관 1명, 전도청당상 2명, 도청당상 2명, 낭청 2명, 전낭청 6명, 등록낭청 94명(중초 17, 정초 77)의 명단이 수록되었다. 정묘호란으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면서 관원을 새로 임명했기 때문에 당상과 낭청을 전후로 구분한 것이다.

호란 이전 각방의 15명 당상 가운데 洪瑞鳳과 金鑾만 제명록에 수록되었다. 나머지 13명은 수록될 수 없었는데, 낭청 24명의 명단과 함께 완전히 실전되었다. 등록관 26명은 의궤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제명록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호란 이후의 명단에도 의궤와 제명록에 차이가 있다. 『光海君日記』는 확인하지 않고 2건만 필사하였으므로 매우 많은 등록관이 동원되었다. 제명록에 누락된 인원은 중초등록관 7명, 정초등록낭청 43명이다. 한편 의궤에는 누락되었으나 제명록에는 수록된 인원도 5명 있다. 명단에는 階司職,<sup>12)</sup> 姓名, 字, 生年(小字雙行), 登第年度와 種類, 本貫이 수록되었다.

『仁祖實錄廳題名記』는 『仁祖實錄』을 편찬할 때의 제명기이다. 효종 1년

9)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寫本 [仁祖 12(1634)], 張4a.

10)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寫本 [仁祖 12(1634)], 張20a.

11)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寫本 [仁祖 12(1634)], 張1b.

12) 階는 品階, 司는 소속 관청, 職은 직위를 가리킨다.

(1650) 7월에 창덕궁 인근의 外兵曹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총재관 李敬輿를 중심으로 편찬하다가,<sup>13)</sup> 효종 2년 2월에 金堉를 총재관으로 임명하고<sup>14)</sup> 효종 4년 (1654) 6월에 50권을 실록자로 간행하였다. 당시의 의궤에도 의궤 편찬에 관한 언급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록 편찬이 끝나자 즉각 의궤를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의궤의 말미에 의궤 편찬자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총재관은 영사 金[堉], 당상은 이조참판 蔡[裕後], 낭청은 형조참의 曹[漢英], 부호군 權[堉], 행집의 趙[復陽], 행응교 洪[處尹], 행이조정랑 李[正英]이 수록되어 있다.

제명기는 효종 4년(1653) 실록을 춘추관에 봉안한 7월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명기는 목활자인 실록자로 인출되었다. 서문은 도청당상 蔡裕後가 썼다. 서문에 이어 명단이 이어지는데, 제명기에 수록된 방법은 실록의 부록에 수록된 찬수와 명단과는 다르게 수록되어 있다. 실록에는 총재관, 도청(당상, 낭청), 1방(당상, 낭청), 2방(당상, 낭청), 3방(당상, 낭청)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제명기에는 총재관, 도청, 1방, 2방, 3방의 당상을 수록하고, 이어 도청, 1방, 2방, 3방의 낭청을 수록한 다음에 등록관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양식은 「[光海君]纂修廳題名錄」과 같다. 呂爾徵, 南老星, 李行進과 같이 사마시, 식년시, 중시, 별시 가운데 2개의 과거에 급제한 경우는 소자쌍행으로 수록되었다.

「[宣祖大王實錄]修正廳題名記」는 이미 간행된 「宣朝實錄」을 수정할 때의 제명기이다. 「宣朝實錄」은 광해군대에 奇自獻이 총재가 되고, 李爾瞻, 朴樾 등이 찬수한 것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다. 계해반정(1623)으로 인조가 즉위한 후 곧바로 李睟光, 徐滄, 李植 등이 수정할 것을 제기하였다.<sup>15)</sup> 또한 「光海君日記」도 편찬해야 했다. 그러나 당대사 편찬 관례와 반정세력의 현실적 긴박성에 따라 「光海君日記」를 먼저 편찬하게 되었다. 수정논의는 해를 넘겨 계속되다가 이괄의 난으로 더 이상 수정에 착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괄의 난이 수습되는 와중에 광해군의 일기를 편찬하였으므로 「宣祖實錄」의 수정은 더 늦어지게 되었다. 인조 21년(1643)에 이르러 대제학 李植이 상소하여

13)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0), 107.

14)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0), 130.

15)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0), 3-4.

마침내 영의정 金瑬에게 관장토록 명하였다.<sup>16)</sup> 실무는 대제학 李植을 중심으로 南別宮에 纂修廳을 설치하여 『時政記』와 『注書日記』를 모두 수합하고 그중 유실되거나 누락된 것은 通報, 야사, 잡기와 여러 사람의 狀誌에서 찾아내어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30년분을 수정한 인조 24년(1646) 9월에 실록을 수정하는 핵심인물인 李植이 인사문제로 파직되고,<sup>17)</sup> 7월에는 과거시험과 관련해 관직을 삭탈당하고 문외 출송되었고, 이듬해 6월 사망하였으므로 중단되었다.

효종이 즉위한 후에도 『宣祖實錄』 수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당시도 『仁祖實錄』을 먼저 편찬할 것인지 『宣祖實錄』을 수정할 것을 고심하다가, 이때에도 『仁祖實錄』을 먼저 편찬하였다. 결국 『宣祖修正實錄』은 『仁祖實錄』이 완성된 효종 8년(1657) 沈之源의 요청으로 재개되었다. 영돈녕부사 金堉에게 이를 총괄하게 하였고,<sup>18)</sup> 李植이 작성해둔 범례에 의거하여 대제학 蔡裕後를 중심으로 재추진하여 효종 8년(1657) 10월에 나머지 11년분을 완성하였다. 효종 8년(1657) 정월에 실록의 수정을 재개했을 때는 종진과 같이 南別宮에 修正廳을 설치하여 편찬하기 시작하였는데, 2월말 중국의 칙사가 곧 도착하게 되어 慶德宮의 承政院으로 옮겨 편찬하였다.<sup>19)</sup> 李植이 수정한 부분은 선조 즉위년(1567)부터 선조 29년(1596)까지 30년분이고, 효종 8년(1657) 金堉이 속찬한 부분은 선조 30년(1597)부터 선조 41년(1608)까지 11년분이다.<sup>20)</sup> 이 실록은 실록자로 간행되었다.

이때의 제명기에는 동지사 蔡裕後가 효종 8년(1657) 10월 중순에 쓴 서문에 이어 제명기가 이어진다. 한 차례 중단된 일이 있어 전반부는 인조 21년(1643)의 명단으로 癸未年의 제명록이고, 후반부는 효종 8년(1657) 丁酉年의 제명록이다. 앞에는 인조 21년(1643)의 총재관 1명, 당상 6명, 낭청 17명의 명단이 수록되었고, 뒤에는 효종 8년(1657)의 총재관 1명, 당상 3명, 낭청 7명, 등록낭청 25의 명단이 수록되었다. 서술양식은 『[仁祖]實錄廳題名記』와 동일하다. 의궤에는 효종 8년

16)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0), 26, 28.

17)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0), 30-32.

18)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0), 31.

19)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0), 37.

20)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0), 37-38.

(1657) 9월 6일 춘추관에 봉안한 후 의궤 5건, 형지안 5건을 작성하여 5처에 분장할 것을 정하고 의궤청을 慶德宮 承政院에 설치하였으나.<sup>21)</sup> 관원 임면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의궤 말미에 수록된 의궤편찬관은 총재관 金[埳], 당상 蔡[裕後], 尹[順之], 낭청 李[正英], 李[稭], 安[後說], 李[慶徽]이다.

효종 8년(1657) 8월 23일 의궤청에서 제명록 60건을 인출할 草注紙 15권, 冊絲 1兩을 속히 조달하라는 공문을 호조, 풍저창, 제용감에 보낸 것으로 보아 제명록을 60건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도 고급지인 초주지로 간행했다.<sup>22)</sup> 또한 제명기에 수록된 실록청 관원은 60명인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반사할 분량만 인출한 것이다. 제명기는 실록자로 인출되었다.

『孝宗實錄』은 현종 1년(1660) 5월 총재관 李景奭을 중심으로 刑曹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편찬에 착수,<sup>23)</sup> 대사헌 蔡裕後가 편찬 실무를 담당, 훈련도감의 병사들이 각자한 목활자로 인출해서 현종 2년(1661) 2월 말에 완성하였다. 현종 2년(1661) 2월 말에 전례에 따라 실록 찬수작업의 전말과 과정을 기록할 의궤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典醫監에 實錄儀軌廳을 설치하고 의궤를 편찬하였다.<sup>24)</sup>

이때에 도청낭청 睦兼善, 趙龜錫, 金壽興, 沈世鼎에게 의궤편찬을 명하였다. 실제 의궤에는 총재관 李[景奭], 당상 洪[命夏], 李[一相]도 수록되어 있다. 종래의 절목을 참고한 節目도 마련하였는데, 절목에는 儀軌 5件, 形止案 5件을 편찬하여 5처 실록봉안처에 분장할 것, 의궤청은 典醫監에 배설하되 實錄儀軌廳이라 칭할 것 등을 규정한 것이다.<sup>25)</sup> 이를 통해 형지안도 의궤청에서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명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顯宗實錄廳題名記』는 『顯宗實錄』을 편찬할 때의 제명기이다. 『顯宗實錄』은 숙종 1년(1675) 5월 남인이 주도하여 영의정 許積과 대제학 金錫胄가 편찬에 착수했다.<sup>26)</sup> 刑曹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각방은 工曹와 司譯院에 나누어 설치하

21)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0), 45.

22)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0), 73.

23)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0), 275, 282.

24)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0), 310.

25)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0), 310-311.

였다.<sup>27)</sup> 곧이어 효종비 인선왕후의 부묘도감을 형조와 공조에 설치하게 되어, 실록청은 9월 창덕궁 비변사로 옮겼다가, 11월에 다시 慶德宮(慶熙宮) 전 備邊司로 이설하였다.<sup>28)</sup> 숙종 3년(1677) 9월에 편찬이 완료되자 인출하기 위해 洛東契에서 활자를 빌리고, 부족하여 활자를 주조하여 보충해서 인출하였다. 완간된 후 빌린 활자를 돌려주지 않고 신주활자와 함께 교서관에 내려주었다.<sup>29)</sup> 『顯宗實錄』의 말미에는 찬수관 명단이 수록되지 않았다.

숙종 3년(1677) 9월 전례에 따라 실록 찬수작업의 전말과 과정을 기록할 의례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慶德宮 備邊司에 實錄儀軌廳을 설치하고 의례를 편찬하였다. 이때에 都廳郎廳 柳命賢, 俞夏益, 陸林儒, 吳始大에게 의례편찬을 명하였는데,<sup>30)</sup> 의례 말미에는 총재관 權[大運], 당상 閔[點], 洪[宇遠], 李[觀徵], 李[沃]도 수록되어 있다. 편찬을 위한 節目도 마련하였는데, 이 절목은 『宣祖修正實錄』과 『孝宗實錄』 편찬시와 대체로 동일하다.

제명기의 서문은 도청당상인 閔點이 썼다. 제명기에는 총재관, 도청(당상, 낭청), 1방(당상, 낭청), 2방(당상, 낭청), 3방(당상, 낭청), 등록관의 순으로 수록되었다. 명단에는 階司職, 姓名, 字, 生年의 간지(小字雙行), 과거 등제 연도와 과거의 종류, 本貫이 수록되었다. 사마시, 식년시, 중시, 별시 등 2개의 과거에 급제한 경우는 소자쌍행으로 수록되었다. 3개과에 합격한 경우 3번째는 대자로 수록되었다. 제명기도 실록과 같은 현종실록자로 인출되었다. 『顯宗實錄』의 경우는 이외에도 다른 실록과는 달리 관차가 다른 제명기가 전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顯宗]改修實錄廳題名記』는 『顯宗實錄』을 개수할 때의 제명기이다. 개수 실록은 숙종 6년(1680) 庚申大黜陟으로 서인이 남인을 숙청하고 정권을 잡자 판교 鄭勳의 건의로 實錄改修廳을 설치하고 개수에 착수하였다.<sup>31)</sup> 이미 편찬된 『顯宗

26) 『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3), 3.

27) 『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3), 9.

28) 『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3), 20-21.

29) 『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3), 48.

30) 『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3), 51.

實錄』은 남인이 주도적으로 편찬했기 때문에 서인에 대해 편파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적지 않고, 또 왕의 독촉으로 급급히 편찬하여 기사에 착란 또는 소략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실록개수청은 형조와 공조에 설치하고,<sup>32)</sup> 총재관으로 영의정 金壽恒을 임명하여 숙종 9년(1683)에 28권을 완성하여 현종실록자로 인출하였다.

숙종 9년(1683) 3월 전례에 따라 실록 개수작업의 전말과 과정을 기록할 의례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刑曹 直房에 實錄改修儀軌廳을 설치하고 의례를 편찬하였다. 이때에 都廳郎廳 金鎭龜, 李世白, 吳道一, 李奮, 徐宗泰에게 의례편찬을 명하였는데, 편찬을 위한 절목도 마련하였다.<sup>33)</sup> 이 절목은 『孝宗實錄』 편찬시와 대체로 동일하다. 의례 말미에는 총재관 金壽恒, 당상 申晟, 李敏叙, 李翊相, 金萬重도 기록되어 있다. 제명록에는 도청당상인 李敏叙가 서문을 써서 선왕의 실록을 개수하는 것은 宋의 『元祐實錄』을 개수한 의의와 같다고 하였다. 제명기에는 서문에 이어 명단이 이어지는데, 총재관, 도청당상, 낭청, 翰林, 등록낭청만 수록되어 있다. 이는 새로 편찬하는 것이 아니고 개수하는 것이므로 분방하지 않은 까닭으로 보인다. 관원마다 階司職, 姓名, 字, 生年, 科擧登第 연도와 과거의 종류, 本貫이 수록되었다. 제명기의 본문은 현종실록자로 인출되었으나 서문은 무신자로 인출되었다.

『端宗實錄附錄』은 숙종 30년(1704) 9월부터 12월까지 찬집하였다. 『端宗實錄』을 편찬할 당시에는 실록이라 하지 않고 『魯山君日記』라 하였다. 단종은 밀려나 上王이 되었다가, 2년 뒤 노산군으로 降封되고 곧 庶人이 되었다가 살해되었다. 讓位가 廢位로 바뀐 결과, 사후에도 廟號나 諡號가 없었고, 실록이 아닌 일기를 편찬한 것이다. 조선 전기 실록의 권말에는 편찬자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그 명단이 없다. 숙종 24년(1698) 11월 노산군의 왕호를 追復해 시호와 함께 ‘端宗’이란 묘호를 올렸으며, 6년 뒤 『魯山君日記』를 『端宗實錄』이라 개칭하였다. 이에 숙종 30년(1704) 9월 實錄附錄撰輯廳을 설치하고 아울러 전말을

31) 『顯宗大王實錄改修廳儀軌』, 寫本 [肅宗 6(1680)], 張4a.

32) 『顯宗大王實錄改修廳儀軌』, 寫本 [肅宗 6(1680)], 張5a.

33) 『顯宗大王實錄改修廳儀軌』, 寫本 [肅宗 6(1680)], 張43a.

기록한 부록을 편찬하였다.<sup>34)</sup> 찬집청은 吏曹에 설치하고, 도제조는 李畬를 임명하였다.<sup>35)</sup> 현종실록자로 인출되었다.

숙종 30년(1704) 11월 전례에 따라 실록 찬수작업의 전말과 과정을 기록할 의례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吏曹에 實錄附錄撰輯儀軌廳을 설치하고 의례를 편찬하였다. 이때에 修正郎廳 李觀命, 崔昌大에게 의례편찬을 명하였는데, 편찬을 위한 절목도 마련하였다.<sup>36)</sup> 이때는 의례를 2건 작성하여 춘추관과 예조에 수장시켰다. 실록청이라 칭하지 않고 實錄附錄撰輯儀軌廳이라 칭한 점, 편찬책임자를 총재관이라 칭하지 않고 도제조라 칭한 점, 의례를 2건만 작성한 점은 이전의 실록과는 다른 점이다. 종래에는 의례 5건과 형지안 5건을 작성하여 5처 실록 사고에 봉안해왔었다. 의례 권말에도 의례 편찬자 명단이 수록되지 않았는데, 도제조 李畬, 제조 徐宗泰와 宋相琦의 지휘하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명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肅宗實錄』은 경종 1년(1721) 11월부터 편찬하기 시작해 영조 4년(1728) 3월에 완성하였다. 9년이나 걸린 것은 숙종의 재위 기간이 46년이나 되어 기사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편찬 과정에서 노소론의 정쟁으로 정국이 자주 바뀌어 실록 편찬 책임자도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찬수청을 창덕궁 비변사에 설치할 때는 노론이 집권하고 있었으므로 노론인 金昌集이 총재관이 되어 실록을 편찬하였다.<sup>37)</sup> 경종 4년(1724) 8월에 경종이 사망하고 노론이 지지하던 영조가 즉위하였으므로 노론이 편찬을 계속, 영조 3년(1727) 9월에 인쇄가 완료되었다. 그런데 인쇄가 완료될 무렵, 丁未換局(1727)이 일어나 노론이 물러가고 李光佐 등 소론이 정권을 잡았다. 소론은 노론이 편찬한 실록에 대해 마땅히 들어가야 할 기사도 빠진 것이 있고, 왜곡한 것도 있다며 개수를 요구하였다.<sup>38)</sup> 하지만 개수는 사실상 불가

34) 『端宗大王實錄附錄撰集廳儀軌』, 寫本 [肅宗 31(1705)], 張4a.

35) 『端宗大王實錄附錄撰集廳儀軌』, 寫本 [肅宗 31(1705)], 張4-5.

36) 『端宗大王實錄附錄撰集廳儀軌』, 寫本 [肅宗 31(1705)], 張16-17.

37)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上, 寫本 [英祖 4(1728)], 張1a.

38) 肅宗實錄, 3年 9月 辛未. 卷13.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冊41, 663.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上, 寫本 [英祖 4(1728)], 張130-134.

능한 일이었으므로 각 권말에 빠진 기사를 보충해 넣거나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는 補闕正誤를 첨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實錄補闕廳을 설치하고 李光佐를 총재관으로 삼아 보결정오를 편찬, 영조 4년(1728) 3월에 현종실록자로 인쇄를 마쳤다.

영조 4년(1728) 3월 전례에 따라 실록 찬수작업의 전말과 과정을 기록할 의궤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典醫監에 實錄儀軌廳을 설치하고 의궤를 편찬하였다. 이때에 都廳郎廳 李宗城과 鄭羽良에게 의궤편찬을 명하였는데, 편찬을 위한 절목도 마련하였다.<sup>39)</sup> 이 절목의 내용은 『孝宗實錄』 편찬시와 대체로 동일하다. 편찬자로 총재관 李堦, 당상 尹淳, 宋眞明, 낭청 李宗白도 의궤 권말에 실려 있다. 이때의 제명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景宗實錄』은 영조 2년(1726) 4월에 시작해서 동 8년(1732) 2월에 완성되었다. 實錄刪節廳은 平市署에 설치하고,<sup>40)</sup> 당상에는 閔鎮遠 등 4인, 낭청에는 成震齡 등 5인을 차출해서 편찬을 시작하였다.<sup>41)</sup> 늦어져 동 3년(1727) 9월 실록청사목을 개정하였고, 실록청을 司譯院에 설치하였다.<sup>42)</sup> 총재관은 동 3년 7월 영의정 李光佐, 동 7년(1731) 4월 좌의정 李堦, 9월 우의정 趙文命으로 교체되었다. 丁未換局(1727) 후 정권이 교체되었으므로 8월에 李德壽, 徐命均 등 소론으로 교체되어 이들이 주로 편찬했다. 戊申亂(1728)으로 인하여 堂郎이 빈번히 교체됨으로써 실록찬수가 늦어졌다. 실록청도 慶德宮 備邊司에 이설되고,<sup>43)</sup> 형조와 공조,<sup>44)</sup> 典醫監,<sup>45)</sup> 또 禮曹와 中樞府로 옮겨졌다.<sup>46)</sup> 현종실록자로 인출해 영조 8년(1732) 2월에 사고에 봉안하였다.

영조 8년(1732) 2월 전례에 따라 실록 찬수작업의 전말과 과정을 기록할 의궤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惠民署에 實錄儀軌廳을 설치하고 의궤를 편찬하였다.

39)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上, 寫本 [英祖 4(1728)], 張145-146.

40) 『景宗大王實錄刪節廳謄錄』, 寫本 [英祖 8(1732)], 張3a.

41) 『景宗大王實錄刪節廳謄錄』, 寫本 [英祖 8(1732)], 張11b.

42) 『景宗大王實錄刪節廳謄錄』, 寫本 [英祖 8(1732)], 張14.

43) 『景宗大王實錄刪節廳謄錄』, 寫本 [英祖 8(1732)], 張31a.

44) 『景宗大王實錄刪節廳謄錄』, 寫本 [英祖 8(1732)], 張36a.

45) 『景宗大王實錄刪節廳謄錄』, 寫本 [英祖 8(1732)], 張36b-37a.

46) 『景宗大王實錄刪節廳謄錄』, 寫本 [英祖 8(1732)], 張41.

이때에 都廳郎廳 趙迪命과 李宗白에게 의궤편찬을 명하였는데, 편찬을 위한 절목도 마련하였다.<sup>47)</sup> 이 절목은 종전의 절목과 대체로 동일하다. 권말에는 의궤청 관원의 명단을 수록하지는 않았다. 또한 『景宗實錄』의 제명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景宗實錄』의 찬수에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정조 즉위년(1777) 『英祖實錄』을 편찬하게 되자 노론 李師濂 등이 『景宗實錄』은 소론이 주가 되어 편찬하여 노론에 불리한 기사가 많다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빠진 것을 보충해야 한다<sup>48)</sup>고 주장하였다. 노론의 정치적 기반이 탄탄해지고 辛壬史禍(1721-1722)가 誣獄으로 규정됨에 따라 『景宗實錄』의 수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마침내 『英祖實錄』과 함께 『景宗實錄』의 수정도 겸하게 하였다. 실록청을 龍虎營에 설치하고, 총재관 金尙喆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는데, 실무는 도청당상 黃景源이 전담하였다.<sup>49)</sup> 이 『景宗修正實錄』은 현종실록자로 인출됐다.

정조 5년(1781) 7월 실록이 완성되자 전례에 따라 실록 찬수작업의 전말과 과정을 기록할 의궤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典醫監에 實錄儀軌廳을 설치하고 의궤를 편찬하였다. 이때에 도청당상 공조판서 李命植, 도청낭청 黃昇源, 洪明浩에게 의궤편찬을 명하였는데, 편찬을 위한 절목도 마련하였다.<sup>50)</sup> 의궤 말미의 명단에는 총재관 鄭存謙도 수록되어 있다. 이 절목은 종래의 절목과 대체로 동일하다. 그러나 『景宗實錄』 수정시의 제명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英祖實錄』과 동시에 편찬되어 실록청 관원의 상당수가 중복되고 의궤 편찬도 동일인이 편찬했으므로, 제명기를 별도로 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英祖實錄廳題名記』는 『英祖實錄』을 편찬할 때의 제명기이다. 『英祖實錄』은 실록청을 설치하고도 찬수가 늦어져 정조 2년(1778) 2월에 착수해 3년 6개월 만인 정조 5년(1781) 7월에 완성하였다. 실록청 각방은 정조 1년(1777) 6월 처음에는 工曹, 司譯院, 保民司에 분설하고,<sup>51)</sup> 총재관은 좌의정 金尙喆을 임명하면서 『景

47) 『景宗大王實錄刪節廳謄錄』, 寫本 [英祖 8(1732)], 張54.

48) 『景宗大王修正實錄儀軌』, 寫本 [正祖 5(1781)], 張1-2.

49) 『景宗大王修正實錄儀軌』, 寫本 [正祖 5(1781)], 張3b.

50) 『景宗大王修正實錄儀軌』, 寫本 [正祖 5(1781)], 張6a.

宗修正實錄』과 동시에 편찬하였다. 수정실록과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넓은 장소로 옮기게 되어 慶德宮 備邊司와 義禁府, 御營廳, 司僕寺, 尙衣院에 나누어 설치하였다.<sup>52)</sup> 윤6월에는 慶德宮 龍虎營으로 이설하였다. 영조의 재위기간이 길어 동원된 인원도 많아 총재관은 金尙喆, 徐命善, 李潑, 李徽之, 鄭存謙 5명이 편찬에 참여하였으나, 徐命善이 중초찬수작업을 대부분 감당하였다. 현종실록자로 인출되었다.

정조 5년(1781) 7월 전례에 따라 실록 찬수작업의 전말과 과정을 기록할 의례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典醫監에 實錄儀軌廳을 설치하고 의례를 편찬하였다. 이때에 도청당상 공조판서 李命植, 도청낭청 黃昇源, 洪明浩에게 의례편찬을 명하였는데, 편찬을 위한 절목도 마련하였다.<sup>53)</sup> 의례 권말에는 편찬관 명단에 총재관 鄭存謙도 수록되어 있다. 제명기의 서문은 도청당상인 趙琰이 썼다. 서문에 이어 제목은 없이 편찬일정을 수록하였고, 이어 명단에는 총재관, 당상, 낭청, 등록 낭청, 분관등록낭청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관원마다 수록양식은 종진과 같은데, 당상과 낭청 명단에는 본관 뒤에 담당할 업무를 纂修, 校正, 校讎, 謄錄, 粉板 등으로 수록하였다. 제명기는 정유자로 인출되었다.

『正祖實錄廳題名記』는 『正祖實錄』을 편찬할 때의 제명기이다. 『正祖實錄』은 순조 1년(1801) 7월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순조 5년(1805) 7월에 완성되었다. 순조 즉위년(1800) 12월에 총재관 李秉模를 임명하고, 실록청 관원을 인선했으나 업무를 개시하지 못하였다.<sup>54)</sup> 『續明義錄』 편찬으로 지연되었고, 李秉模와 李時秀는 각각의 사정으로 임명된 후 곧 사직했으므로 실제 찬수는 徐邁修가 주도하였다. 순조초기는 老論 僻派가 時派를 포섭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던 시기였는데 이때에 편찬되었다. 순조 1년(1801) 1월 실록청사목을 정해 舊 守禦廳에 실록청을 설치하였고,<sup>55)</sup> 산절작업을 마친 동년 12월 28일에 실록청을 龍虎營으로 옮겼다.<sup>56)</sup> 총재

51) 『英宗大王實錄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4), 9.

52) 『英宗大王實錄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4), 17.

53) 『英宗大王實錄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4), 174-175.

54) 『正宗大王實錄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5), 3.

55) 『正宗大王實錄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5), 8.

관은 李秉模, 李時秀, 徐龍輔, 徐邁修로 교체되었으므로, 徐邁修가 실록편찬을 마무리 지었다. 결국 대체학 李晚秀가 주도하였고 현종실록자로 인출하였다.

순조 5년(1805) 8월 전례에 따라 실록 찬수작업의 전말과 과정을 기록할 의궤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典醫監에 實錄儀軌廳을 설치하고 의궤를 편찬하였다. 이때에 총재관 徐邁修, 도청당상 형조판서 徐龍輔, 낭청 사간 宋知謙, 우통례 尹濟弘에게 의궤편찬을 명하였는데, 편찬을 위한 절목도 마련하였다.<sup>57)</sup> 의궤의 완성은 순조 6년(1806) 4월에는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58)</sup> 즉 전례에 따라 제명기를 편찬해야 하는데 물력이 다 소모되었으므로 간소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호조와 병조에서 각각 60량씩 보내도록 공문을 보낸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sup>59)</sup> 제명기의 인출과 의궤의 완성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략 23장의 분량을 약 70건 인출하는데, 120량이 소요된 것으로 보아 1건에 1.5兩이 투입된 것이다.

제명기의 서문은 당상인 金祖淳이 썼다. 서문에 이어 편찬일정을 수록하였고, 이어 명단에는 총재관, 당상과 낭청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낭청은 다시 낭청, 등록낭청과 분관등록낭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낭청에 수록되어 있다. 당상과 낭청 명단에는 분관 뒤에 담당할 업무를 纂修, 校正, 校讎, 謄錄, 粉板 등으로 수록하였다. 제명기는 정유자로 인출하였다.

『純祖實錄廳題名記』는 『純祖實錄』을 편찬할 때의 제명기이다. 『純祖實錄』은 헌종 1년(1835) 5월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편찬을 시작하여 헌종 4년(1838) 윤4월에 완성했다. 실록청은 교서관에 설치하고,<sup>60)</sup> 총재관은 李相瓚을 임명하여 편찬하였다.<sup>61)</sup> 총재관에 李相瓚, 沈象圭, 洪奭周, 朴宗薰, 李止淵 5명이 교체되었고,

56) 『正宗大王實錄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5), 23.

『[正宗大王]實錄廳題名記』, 丁酉字本 [純祖 5(1805)], 張3.

57) 『正宗大王實錄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5), 73.

58) 『正宗大王實錄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5), 250.

59) 『正宗大王實錄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5), 119.

60) 『純宗大王實錄刪節廳儀軌』, 寫本 [憲宗 4(1838)], 張1a.

『純祖大王]實錄廳題名記』, 丁酉字本 [憲宗 4(1838)], 張2a.

61) 『純宗大王實錄刪節廳儀軌』, 寫本 [憲宗 4(1838)], 張2a

당상 申在植과 趙寅永이 중초찬수작업을 대부분 감당하였다. 실록은 현종실록자로 인출되었으나, 제명기는 정유자로 인출되었다.

현종 4년(1838) 윤4월 전례에 따라 실록 찬수작업의 전말과 과정을 기록할 의례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典醫監에 實錄儀軌廳을 설치하고 의례를 편찬하였다.<sup>62)</sup> 의례 편찬의 명을 받은 관원은 낭청 金德喜와 李源庚이다.<sup>63)</sup> 의례 권말의 편찬자명단에는 총재관 李止淵, 당상 李憲璋, 낭청 金德喜와 李源庚이 수록되어 있다. 제명기의 서문은 당상인 金道根이 썼다. 서문에 이어 편찬일정을 수록하였고, 이어 명단에는 총재관, 당상, 낭청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관원을 수록한 양식은 전례와 같다. 당상과 낭청 명단에는 都廳, 纂修, 校正, 校讎, 謄錄, 粉板 등 담당할 업무에 이어 仕日數를 부기하였다. 이 제명기부터 당상과 낭청뿐만 아니라 총재관의 명단에도 본관 뒤에 仕日數가 부기되어 있다. 총재관의 경우 李相璜과 沈象奎는 2일, 朴宗薰 3일, 洪爽周와 李止淵은 5일이다. 李止淵은 또 당상과 교정으로 165일을 근무하였다. 당상은 적게는 徐俊輔 8일, 朴周壽, 金蘭淳, 徐憲淳 9일, 많게는 鄭元容 248일, 申在植 287일, 趙寅永 317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낭청은 적게는 吳致淳 1일, 宋能圭 2일부터 많게는 沈宜升 410일, 金德喜 527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진일수에 따라 상을 받았을 것이다.

「憲宗實錄廳題名記」는 「憲宗實錄」을 편찬할 때의 제명기이다. 「憲宗實錄」은 철종 즉위년(1849) 11월 실록청을 설치하고 편찬을 시작해, 철종 2년(1851) 9월에 인출하였다. 실록청은 교서관에 설치하고,<sup>64)</sup> 총재관은 趙寅永을 임명하여 편찬하였다.<sup>65)</sup> 총재관은 趙寅永, 鄭元容, 權敦仁, 金道喜, 朴晦壽, 金興根, 朴永元 7명이 교체되었다. 제명기가 완성된 후 현종실록자로 인출되었다.

철종 2년(1851) 10월 실록의 편찬이 완료되자 전례에 따라 실록 찬수작업의 전말과 과정을 기록할 의례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교서관에 實錄儀軌廳을

62) 「純宗大王實錄刪節廳儀軌」, 寫本 [憲宗 4(1838)], 張34a

63) 「純宗大王實錄刪節廳儀軌」, 寫本 [憲宗 4(1838)], 張33b.

64) 「憲宗大王實錄廳儀軌」, 寫本 [哲宗 3(1852)], 張44-45.

「[憲宗大王]實錄廳題名記」, 丁酉字本 [哲宗 3(1852)], 張3a.

65) 「憲宗大王實錄廳儀軌」, 寫本 [哲宗 3(1852)], 張11a.

설치하고 의궤를 편찬하였다. 이때에는 편찬을 위한 절목도 마련하였다.<sup>66)</sup> 의궤 말미의 의궤청 명단에 총재관 朴永元, 당상 金炳冀, 낭청 鄭健朝와 金炳國이 수록되어 있다. 이 의궤에는 제명기 편찬을 위한 물품과 경비로 각 60량을 수송하라고 호조와 병조에 보낸 공문이 있다.<sup>67)</sup> 제명기의 서문은 당상인 金左根이 썼다. 종전 실록의 의궤에는 제명기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때부터 의궤에도 서문이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제명기 권두에는 서문에 이어 편찬일정을 수록하였고, 이어 명단에는 총재관, 당상, 낭청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당상과 낭청뿐만 아니라 총재관의 명단에도 본관 뒤에 仕日數가 부기되었다. 당상과 낭청 명단에는 都廳, 纂修, 校正, 校讎, 謄錄, 粉板 등 담당한 업무에 이어 仕日數가 부기되었다. 제명기는 정유자로 인출하였다.

『哲宗實錄廳題名記』는 『哲宗實錄』을 편찬할 때의 제명기이다. 『哲宗實錄』은 고종 1년(1864) 5월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여 다음해 5월에 출판했다. 조선이 편찬한 마지막 실록이다. 실록청은 北營에 설치하였다가 2달 후 교서관으로 옮겼다.<sup>68)</sup> 총재관은 鄭元容, 金興根, 金左根, 趙斗淳, 李裕元, 金炳學 6명이 교체되었다. 체제는 역대의 실록과 거의 같으며 역대 실록에 비해 다소 부실한 면이 있다. 현종실록자로 인출되었다.

고종 2년(1865) 5월 전례에 따라 실록 찬수작업의 전말과 과정을 기록할 의궤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典醫監에 實錄儀軌廳을 설치하고 절목도 마련해 의궤를 편찬하였다.<sup>69)</sup> 이때에 도청당상 이조판서 洪鍾序, 副司果 金奎弘, 趙定燮에게 의궤편찬을 명했다.<sup>70)</sup> 철종의 경우 의궤 말미에 수록된 관원은 총재관 金炳學, 당상 洪鍾序, 낭청 金奎弘과 趙定燮이다. 金學性이 제찬한 제명기의 서문이 의궤 권말에도 수록되어 있다. 제명기에는 서문에 이어 편찬일정이 수록되었고,

66) 『憲宗大王實錄廳儀軌』, 寫本 [哲宗 3(1852)], 張13-14.

67) 『憲宗大王實錄廳儀軌』, 寫本 [哲宗 3(1852)], 張42b.

68) 『哲宗大王實錄廳儀軌』, 寫本 [高宗 2(1865)], 張2a.

『[哲宗大王]實錄廳題名記』, 寫本 [高宗 2(1865)], 張3a.

69) 『哲宗大王實錄廳儀軌』, 寫本 [高宗 2(1865)], 張74a.

70) 『哲宗大王實錄廳儀軌』, 寫本 [高宗 2(1865)], 張34a.

이 명단에는 총재관, 당상, 낭청으로 나누어 수록되었다. 당상과 낭청뿐만 아니라 총재관의 명단에도 본관 뒤에 仕日數가 부기되었다. 당상과 낭청 명단에는 都廳, 各房, 纂修, 校正, 校讎, 謄錄, 粉板 등 담당한 업무에 이어 仕日數를 부기하였다. 제명기는 현종실록자로 인출되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에 편찬된 실록청의 제명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표 4>와 같다. 표에 보이는 설치장소 가운데 가장 뒤의 장소는 의례청을 설치한 곳이다. 의례청이 가장 빈번하게 설치된 곳은 典醫監이다. 실록을 편찬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장소를 옮긴 경우는 영조, 현종의 실록을 편찬할 때이다. 특히 영조의 경우는 재위 기간이 길고 분량이 많아서 여러 장소로 분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儀軌廳의 設置場所와 儀軌廳摠裁官

王名	設置場所	摠裁官
光海君	春秋館 → 南別宮	尹[昉]
仁祖	外兵曹	金[增]
宣祖修正	南別宮 → 慶德宮承政院	金[增]
孝宗	刑曹 → 典醫監	李[景奭]
顯宗	刑曹(工曹, 司譯院) → 昌德宮備邊司 → 慶德宮 前 備邊司	權[大運]
顯宗改修	刑曹, 工曹 → 刑曹	金[壽恒]
端宗附錄	吏曹	李畚
肅宗	昌德宮備邊司 → 典醫監	李堞
景宗	平市署 → 司譯院	
景宗修正	龍虎營 → 典醫監	鄭存謙
英祖	工曹, 司譯院, 保民司 → 慶德宮備邊司, 義禁府, 御營廳, 司僕寺, 尙衣院 → 慶德宮龍虎營 → 典醫監	鄭存謙
正祖	舊 守禦廳 → 龍虎營 → 典醫監	徐邁修
純祖	校書館 → 典醫監	李止淵
憲宗	校書館	朴永元
哲宗	北營 → 校書館 → 典醫監	金炳學

실록 말미에 수록된 실록청 관원의 명단과 「實錄纂修廳儀軌」와 「實錄廳題名

記』의 명단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가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實錄廳題名記』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록된 내용은 序(서문)와 참여관원의 명단이다. 서문에는 실록 편찬시기, 내력과 제명기를 작성하는 의의, 참여 관직의 종류와 그 업무를 밝혔다. 참여한 관원의 명단은 기본적으로 摠裁, 堂上, 郎廳으로 구분되었다. 여기서 총재는 총괄하는 책임을, 실무는 당상과 낭청이 담당하였다. 관원마다 수록된 내용은 階司職, 姓名, 字, 生年, 登第年度와 種類, 本貫이 수록되었는데, 후대의 제명기에는 실록청에서 수행한 업무, 仕日數도 기록되어 있다. 후대의 제명기에는 권두에 작업일정도 수록되어 있다. 즉 堂郎 差定, 設廳始役, 刪節, 纂修始役, 刊印, 洗草를 시작한 일자와 간혹 완료한 날자도 수록되었다.

#### 4. 實錄廳 儀軌와 題名記의 官員 差異

의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실록청 관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명단은 實錄廳 堂上郎廳別單과 摠裁官堂上郎廳竝錄이다. 實錄廳堂上郎廳別單은 실록청 관원의 명단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편찬에 참여한 관원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록 편찬을 마친 직후에 실록청에서 국왕에게 올린 실록청 관원의 명단이다. 이와는 별도로 의궤에는 실록청에 근무한 관원의 임명과 해임 일자, 근무일수가 자세히 정리된 摠裁官堂上郎廳竝錄도 실려 있다. 여기에는 도청, 각방, 등록청, 교수청, 별공작청 등 부서별로 소속된 관원의 근무기간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의궤 기록 모두에 동일하게 수록된 것도 아니고, 관원 명단이 전체 명단이 아닌 특정시점의 관원만 실린 것도 있고, 또 작성 당시에 고인이 된 관원은 수록되지 않아 편찬에 참여한 모두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의궤에 수록된 공문을 토대로 실록 말미에 수록할 명단, 賞典用의 명단, 제명기의 명단이 작성되었을 것이다. 이에 실록별로 실록 말미, 의궤, 제명록의 명단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光海君日記』는 편찬을 시작한 후 정묘호란(1627)으로 수정이 중단되었고, 인조 11년(1633)에 다시 설국하여 재개하였다. 정묘호란을 만나 수정을 중단하면서 사료를 매몰해서 보관했는데 이때 상당수가 부파되었다. 이로서 호란 이전 각방의 15명 당상 가운데 洪瑞鳳과 金鑾만 제명기에 수록되고, 13명은 제명기에 수록되지 않았다. 낭청 24명의 명단은 완전히 실전되었다. 또한 등록관 26명은 의궤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제명기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호란 이후의 명단에도 의궤와 제명기에 차이가 있다. 『光海君日記』는 活印하지 않고 2건만 필사하였으므로 매우 많은 등록관이 동원되었다. 제명기에 누락된 인원은 중초등록낭청 7명, 정초등록낭청 43명이다. 한편 의궤에는 명단에 없으나 제명기에는 수록된 인원도 5명이나 있다.

관직명의 차이는 임명 당시와 제명록 편찬 당시와 시차가 있으므로 변동될 수는 있다. 의궤에는 실직만 기록된데 비해 제명기에는 階司職이 완전히 다 기록되어 있다. 의궤에는 임명순으로 수록하였으나, 제명기에는 전도청, 도청, 전낭청, 낭청으로 구분해 수록하였다.

『宣祖大王實錄修正廳題名記』의 전반부는 인조 21년(1643)의 癸未年의 명단이고, 후반부는 효종 8년(1657) 丁酉年의 명단이다. 의궤에는 임명순으로 수록되었으나, 제명기에는 총재관, 당상, 낭청, 등록관의 순으로 수록되었다. 연월일 순으로 수록된 의궤의 관원을 관직순으로 재배열하면 제명록과 일치된다. 이후의 다른 실록의 경우도 제명기와 의궤의 명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분석하여 차이가 있는 것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名單에서 漏落된 官員

	書籍	堂上	郎廳	謄錄官
光海君 (胡亂以前)	儀軌		24명 전원	26명 전원
	題名記	韓浚謙, 徐滄, 李晳光, 權盡己, 鄭光績, 鄭暉, 張維, 吳百鎔, 南以恭, 李時發, 尹暄, 李顯英, 朴東善.	24명 전원	26명 전원

	書籍	堂上	郎廳	膳錄官	
光海君 (胡亂以後)	儀軌		洪命一, 權堧, 兪槐, 宋夢錫, 金益熙		
	題名記			李桂, 鄭致和, 崔有淵, 尹坵, 鄭百亨, 李趙淳, 李垺(以上 中草) 洪憲, 柳德昌, 沈广+齊, 李稠, 安時賢, 趙錫胤, 趙希進, 申恂, 鄭翼卿, 李時楷, 許稔, 卞時益, 呂焯, 元海一, 金鼎鉉, 韓克述, 閔光勳, 柳穎, 李祗先, 鄭百亨, 鄭維城, 李尙質, 金光燦, 宋獻吉, 金燦, 申敏一, 崔有淵, 崔荇, 崔衢, 朴++選, 李光春, 柳穎, 李海昌, 金慶餘, 蔡聖龜, 成楚容, 林棟, 金音+業, 曹希仁, 鄭好仁, 李峽, 李垺, 李景義(以上 正草)	
仁祖	實錄			61명 전원	
	題名記	許積, 申冕, 黃辰, 李時棟, 崔惠吉	鄭斗卿, 金德承, 沈广+魯, 申混, 姜與載, 張應一	趙龜錫	
顯宗	題名記	姜栢年, 洪宇遠, 吳始壽, 金萬重, 李觀徵	朴世堂, 崔錫鼎, 兪夏益, 沈壽亮, 陸昌明, 李沆	李善溥	
顯宗 改修	儀軌				
	題名記				
英祖	題名記	李徽之, 李福源, 洪樂純, 洪國榮, 鄭民始, 洪樂命, 趙時俊, 柳憲, 徐有慶, 李在協, 洪樂性, 權善, 李善行, 李義翊, 李致中, 李敬養, 吳載紹	李敬養, 宋煥億, 朴宗來, 鄭宇淳, 安聖彬, 朴在源, 南柱老, 姜忱, 韓晚裕, 曹遠振, 尹弼乘, 金勉柱, 李秉模, 鄭志儉, 沈念祖	膳錄官	粉板膳錄官
				李信祐, 洪仁浩, 李百亨, 李尙度, 趙興鏞, 李祖永, 李周顯, 權愼, 李燁	崔守忱, 徐美修, 黃仁玟, 趙城鏞, 李集星
正祖	儀軌	李得臣, 徐鼎修, 李祖承, 尹光普	尹悌東, 金熙采, 南凍, 玄重祚		
	題名記	丁範祖, 權裕, 尹行恁, 金達淳	李東萬, 李重蓮		
純祖	儀軌				
	題名記				
憲宗	儀軌				
	題名記				
哲宗	儀軌				
	題名記				

실록청의 제명기를 편찬한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편찬시점을

알기 어렵다. 다만 論賞을 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 또는 政府宴이나 洗草宴을 위해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출시키는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선조수정, 정조, 헌종의 실록 편찬시 의궤의 권말에 제명기 편찬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헌종과 철종 실록 편찬시의 의궤에는 권말에 제명기의 서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궤와 동시에 또는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5. 「顯宗實錄廳題名記」의 異版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록의 편찬이 완전히 끝난 후 의궤청에서 제명기를 편찬하였다. 기존의 실록을 수정하거나 개수할 때에도 별도로 제명기를 편찬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宣祖實錄」과 「顯宗實錄」의 수정과 개수할 때의 제명기도 별도로 전래되고 있다. 다만 「景宗實錄」은 아직 제명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성격의 제명기가 전래되는 경우가 있다. 숙종 9년(1683)에 「顯宗實錄」을 개수할 때의 제명기 외에 숙종 3년(1677)에 「顯宗實錄」을 편찬할 때의 제명기도 2종이 전래되고 있다. 동시에 2종의 제명기가 전래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서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2종의 내용상 차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國立圖書館 收藏의 [顯宗]實錄廳題名記의 差異點

位置	古2153-1	位置	韓古朝51-나142
序文版心題	本文 置자 중간 위치에서 시작	序文版心題	本文 置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
序文張次	本文 刪자와 같은 위치	序文張次	本文 其자와 같은 위치
序文1b-8	太史	序文1b-8	大史
序文年度	연도없이 階司職 연이어 수록	序文年度	改行 후 한자 낮추어서 歲丁巳秋九月…階司職
序文者官職	正憲大夫吏曹判書…	序文者官職	崇政大夫行吏曹…同知經筵
1a-1	總裁官 위 공간 없이 시작	1a-1	總裁官 위 한 글자 공간 둠
1a-3	許積	1a-3	許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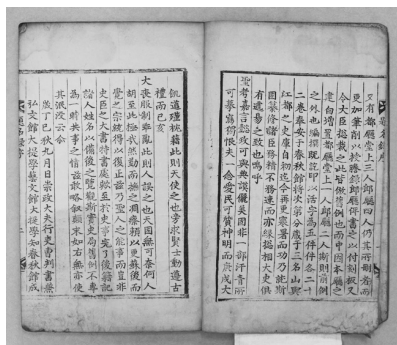
位置	古2153-1	位置	韓古朝51-나142
1a-8	都廳堂上 위 공간 없이 시작	1a-8	都廳堂上 위 한 글자 공간 뒀
1a-11	淸風人 이하 없음	1a-11	淸風人 이어 소자쌍행으로 原任大提學 丁巳正月遞
1b-4	正憲大夫吏曹判書	1b-4	崇政大夫行吏曹判書
1b-5	成均館事閑 點	1b-5	成均館事同知經筵事閑點
1b-8	正憲大夫議政府…藝文館提學	1b-8	崇政大夫行議政府…
1a-11	加出堂上 위 공간 없이 시작	2a-1	加出堂上 위 한 글자 공간 뒀
2a-3	都廳郎廳 위 공간 없이 시작	2a-4	都廳郎廳 위 한 글자 공간 뒀
3b	張善激, 洪處大, 吳挺緯 ㄴ	3b	張善激, 吳挺緯, 洪處大 ㄴ
3b-4	崇祿大夫…兼知春秋館事	3b-5	崇政大夫…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
3b-9	行戶曹判書兼同知成均館知春秋館事	3b-8	戶曹判書兼知春秋館事同知成均館事
4a	李弘淵, 尹深, 李夏鎭, 李壽曼 ㄴ	4a	尹深, 李弘淵, 李壽曼, 李夏鎭 ㄴ
4a-3	同知義禁府事	4a-2	同知義禁府春秋館事
4a-9	通訓大夫行宗簿寺正兼	4a-8	通訓大夫宗簿寺正知製 教兼
4b	柳命天, 尹趾善, 權楷 ㄴ	4b	權楷, 柳命天, 尹趾善 ㄴ
4b-3	通訓大夫…副司果兼春秋館記注官	4b-7	禦侮將軍…副司果知製 教兼春秋館記事官
4b-9	知 經筵事閑 熙	5a-1	知 經筵春秋館事閑 熙
4b-11	知春秋館義禁府事	5a-3	兼知義禁府春秋館事
5a-9	二房郎廳 위 공간 없이 시작	5b-1	二房郎廳 위 한 글자 공간 뒀
5b	李日井, 權瑛, 郭齊華, 李德周 ㄴ	5b	郭齊華, 李德周, 李日井, 權瑛 ㄴ
5b-9	三房堂上 위 공간 없이 시작	6a-1	三房堂上 위 한 글자 공간 뒀
6a-2	甲午式年	6a-5	戊子司馬 甲午式年
6a-8	成均館司成兼	6b-2	行成均館司成知製 教兼
6a-10	兵曹正郎兼	6b-7	行兵曹正郎知製 教兼
6a-b	任相元, 李壽卿, 吳始復, 趙嗣基, 金奂, 尹致績, 李濡 ㄴ	6a-b	趙嗣基, 任相元, 金奂, 李壽卿, 吳始復, 李濡, 尹致績 ㄴ
6b-1	吏曹佐郎…漢學教授南學教授校書館校理	6b-9	行吏曹佐郎…校書館校理漢學教授南學教授
6b-2	重初	6b-11	仲初
6b-3	福川人	6b-11	同福人
6b-4	司諫院司諫	6a-11	行司諫院司諫
6b-6	掌令兼	6b-5	掌令知製 教兼
7a-3	行軍資監正	7a-7	軍資監正
7b-6	行前司諫院正言	7b-10	行司諫院正言
8a-3	奉直郎成均館典籍	8a-7	奉直郎行成均館典籍
8a-9	通訓大夫承文院正字	8b-2	通訓大夫行承文院正字

편의상 古2153-1를 A본으로 칭하고, 韓古朝51-나142를 B본으로 칭하기로 하고, 두 판본에 나타난 문제점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1) A본에는 서문을 쓴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B본에는 丁巳 3월이라 밝히고 있다. 丁巳년은 숙종 3년(1677) 실록편찬이 완료된 시점이다. 그렇다면 B본이 먼저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 古2153-1 서문



<그림 2> 韓古朝51-나142 서문



<그림 3> 古2153-1



<그림 4> 韓古朝51-나142

2) 서문을 쓴 閱點의 관직이 A본에서는 正憲大夫吏曹判書라 표기되어 있으나,

B본에는 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기록되어 있다. B본의 품계가 더 높다. 그렇다면 A본이 먼저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3) A본에는 기록이 없으나, B본에는 閔黈이 同知經筵事를 겸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閔黈이 同知經筵事를 제수받은 시기와 체직된 시기가 문제가 된다.

4) A본에서는 張3b의 張善激(崇祿大夫: 종1품상계), 洪處大(嘉義大夫: 종2품상계), 吳挺緯(正憲大夫: 정2품상계) 순이었는데, B본에서는 張善激(崇政大夫: 종1품하계), 吳挺緯(正憲大夫), 洪處大(嘉義大夫: 종2품상계)의 순으로 바뀌었다. 품계순으로 수록하기 위해서는 고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 張善激의 품계가 달라졌는데, A본이 더 높다. 낮은 품계에서 높은 품계로 승진한다고 보면 B본이 먼저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A본에는 張善激의 품계가 崇祿大夫로 기록되어 있으나, B본에는 崇政大夫로 기록되어 있고 관직은 義禁府判事가 추록되어 있다. 張善激은 義禁府判事를 두 차례 역임했는데, 숙종 1년 1월 제수, 1년 5월 사퇴하였고, 3년 2월 제수, 4월에 파직되었다. 제명기를 편찬할 시점이라면 파직된 후이다. 혹 B본이 먼저 간행되었을 수도 있다.

6) A본에는 吳挺緯의 관직을 正憲大夫行戶曹判書로 기록하고 있으나 B본에는 正憲大夫戶曹判書로 기록되어 있다. 관직명 앞에 ‘行’을 부기한 것은 높은 품계로서 낮은 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도 B본이 먼저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 張4a에 있어 A본은 李弘淵(嘉善大夫: 종2품하계), 尹深(嘉義大夫: 종2품상계), 李夏鎭(通訓大夫: 정3품하계), 李壽曼(通訓大夫: 정3품하계)의 순으로 수록되었으나, B본은 尹深, 李弘淵, 李壽曼, 李夏鎭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품계상 가선대부를 가의대부보다 앞에 수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오류를 바로잡은 것으로 추정되어 A본이 먼저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 A본은 尹同深의 관직을 同知義禁府事로 기록하고 있는데, B본은 同知義禁府春秋館事로 기록되어 있다. 실록청의 당상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춘추관의

관직을 검해야 하는데 A본에는 누락되었으므로 B본에서는 수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궤 편찬시에는 춘추관의 직책이 면직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면 B본이 먼저 간행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9) A본은 柳命天(中直大夫: 종3품상계), 尹趾善(通訓大夫: 정3품하계), 權璫(通訓大夫: 정3품하계) 순으로 수록되었고, B본은 權璫(通訓大夫), 柳命天(中直大夫), 尹趾善(禦侮將軍: 정3품당하관) 순으로 수록되었다. 당연히 通訓大夫가 中直大夫보다 앞에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尹趾善의 官階 禦侮將軍은 武散階라 하나 품계가 높는데 柳命天 뒤에 수록한 이유를 알 수 없다.

10) 閔熙의 관직명에 A본은 知經筵事만 기록되어 있으나, B본은 知春秋館事도 기록되어 있다. 실록청의 당상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춘추관의 관직을 검해야 하는데 A본에는 누락되었다.

11) 沈棹의 등제년도를 수록함에 있어 A본은 甲午式年만 수록되었으나, B본은 戊子司馬 甲午式年으로 수록되었다. 이는 A본에는 누락되었으므로 B본에서는 수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A본이 먼저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는 A본에는 실수로 빠트렸을 수도 있다.

12) 吳始復의 관직은 A본에는 吏曹佐郎(숙종 1년 3월, 5월 제수, 2년 5월 參議)으로 기록되었으나, B본에는 行吏曹佐郎으로 校書館校理(1년 8월 제수)까지 겸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3) A본은 任相元(通訓大夫: 정3품하계), 李壽卿(通訓大夫), 吳始復(朝奉大夫: 종4품하계), 趙嗣基(通訓大夫), 金奐(奉正大夫: 정4품상계), 尹致績(禦侮將軍: 정3품당하관), 李濡(宣略將軍: 종4품하계) 순으로 수록되었고, B본은 A본과 같은 품계이지만 趙嗣基, 任相元, 金奐, 李壽卿, 吳始復, 李濡, 尹致績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A본에서는 吳始復이 趙嗣基와 金奐보다 앞에 수록된 점과 尹致績이 吳始復이나 金奐보다 뒤에 수록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B본에서는 金奐과 李壽卿의 위치가 바뀐 것과 尹致績이 가장 말미에 수록된 점에 문제가 있다.

14) 吳始復의 字와 본관이 A본에는 重初와 福川人으로 수록되었고, B본에는 仲初와 同福人으로 수록되어 있다. 字는 仲初가 맞으며, 福川은 同福의 이칭이다.

이로서 A본이 먼저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고, 또는 A본의 오식일 수도 있다.

15) 沈櫟의 관직이 A본에는 行前司諫院正言으로 수록되어 있고, B본에는 行司諫院正言(숙종 3년 8월 19일 제수)으로 수록된 것으로 보아 B본이 먼저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 司諫院正言에서 체직되었느냐이다. 그러나 다른 관직에 임명되어도 겸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직된 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위의 사항을 종합하면 어느 판본이 먼저 간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오자를 수정했을 수도 있으므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문구상으로 서문연대를 분명히 밝힌 점으로 보아 B본이 먼저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 두 판본은 같을 활자로 간행되었으나 일부만 수정해서 인출한 것이 아니고 따로 조판해서 인출한 것이다. A본은 고려대 화산문고에도 1책이 수장되어 있고, B본은 서울대 일반고서에도 1책 수장되어 있어 둘 다 복본이 전래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수정해서 인출하였는지 앞으로 고구해야 할 문제이다.

## 6. 結 言

조선시대에는 실록의 인출이 완료되면 춘추관에 봉안하고 즉각 의궤청을 설치하고 의궤와 제명기를 편찬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명기의 편찬은 조선 전기의 관례를 계승한 것이다. 중종년간의 題名帖子를 언급한 효종 4년(1654)의 기록을 통해 제명록 편찬을 유추할 수 있다.
- 의궤청에서 제명록도 편찬하였는데, 의궤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편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실록청제명기는 실록의 인출이 완료되는 단계에 작성되었는데, 동원된 관료의 명단이다. 이는 실록 말미에 수록된 명단, 정부연에 초청한 명단, 포상한

명단과도 관련이 있다.

- 임진왜란 이전의 제명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가장 오래된 제명기는 선조년간 정족산본을 복인할 때의 「實錄印出廳題名記」이다. 이후 역대 실록편찬과 동시에 제명기도 편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명기가 전래되는 것은 광해군, 인조, 선조수정, 현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의 실록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선조, 효종, 단종부록, 숙종, 경종, 경종수정의 경우이다.
- 전래되는 제명기는 모두 간본인데, 현종개수 이전본은 목활자인 실록자, 영조, 정조, 순조, 헌종의 제명기는 정유자, 철종의 경우만 현종실록자로 인출되었다.
- 명단에 수록된 내용은 인명마다 階司職, 성명, 자, 생년, 등재년, 科試名, 본관이다. 영조부터는 본관에 이어 담당업무가 부기되었고, 순조부터는 이어 仕日數가 부기되어 점점 자세하게 기록된다.
- 의궤에 수록된 別單이나 竝錄의 내용과 제명기에 수록된 명단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고구가 필요하다.
- 역대의 제명기는 異本이 없으나 현종의 경우만 異本이 있다. 같은 현종실록자로 간행되었지만 따로 조판된 것으로 추정된다. 차이점을 대비해보아도 전후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국립도서관의 韓古朝51-나142本과 서울대 일반고서본이 먼저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거듭 간행한 이유와 간행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고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光海君日記]纂修廳題名錄」. 實錄字本. [仁祖 12(1634)].

「[純祖]實錄廳題名記」. 丁酉字本. [憲宗 4(1838)].

「[英祖]實錄廳題名記」. 丁酉字本. [正祖 5(1781)].

「[仁祖]實錄廳題名記」. 實錄字本. [孝宗 4(1653)].

- 「[正祖]實錄廳題名記」. 丁酉字本. [純祖 5(1805)].
- 「[哲宗]實錄廳題名記」. 顯宗實錄字本. [高宗 2(1865)].
- 「[憲宗]實錄廳題名記」. 丁酉字本. [哲宗 3(1852)].
- 「[顯宗]實錄修正廳題名記」. 顯宗實錄字本. [肅宗 9(1683)].
- 「[顯宗]實錄廳題名記」. 顯宗實錄字本. [肅宗 3(1677)].
- 「[宣祖大王實錄修正廳題名記」. 實錄字本. [孝宗 8(1657)].
-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寫本. [仁祖 12(1634)].
- 「[景宗大王實錄刪節廳謄錄」. 寫本. [英祖 8(1732)].
- 「[端宗大王實錄附錄撰集廳儀軌」. 寫本. [肅宗 31(1705)].
-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0.
-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寫本. [英祖 4(1728)].
- 「[純宗大王實錄刪節廳儀軌」. 寫本. [憲宗 4(1838)].
- 「[英宗大王實錄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4.
-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 「[正宗大王實錄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5.
- 「[哲宗大王實錄廳儀軌」. 寫本. [高宗 2(1865)].
- 「[憲宗大王實錄廳儀軌」. 寫本. [哲宗 3(1852)].
- 「[顯宗大王實錄改修廳儀軌」. 寫本. [肅宗 6(1680)].
- 「[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3.
-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 2000.
-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4288-4291.
- 裴賢淑. “宣祖年間の 實錄印出廳題名記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46집(2010. 9). 5-39.